

영상자막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리나즈 아사레입니다. 저는 이곳 이란 테헤란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의 직원입니다. 1986년에 설립된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은 처음에는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전 교육과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당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각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교사와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통해 협동조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 대부분은 이란 남서부 데즈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약 25년 전, 가족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한정된 자본으로 데즈풀 외각의 땅을 매입해 그린하우스를 지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공동체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 협동조합은 주민들을 위한 수업을 마련하거나 문화행사를 조직하는 등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공합니다.

제가 15살 때 저와 6명의 친구들은 교내 문화 및 과학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협동조합을 조직하자 다른 학생들 또한 협동조합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헤로시드에서 12년의 학업을 마친 후 협동조합에서의 쌓은 경험을 이용해 저는 지금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며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협동적인 팀워크가 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주신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 곁에서 일한 시간들은 저에게 참으로 보람된 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